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4.11.(제 11호)

서울시민의 스토킹 피해 및 대응 경험과 정책개선 방향*

김보화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팀

[관련 분야 재단 연구 실적]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 및 정책과제(2023)

디지털성범죄 정책대응 강화 방안 연구(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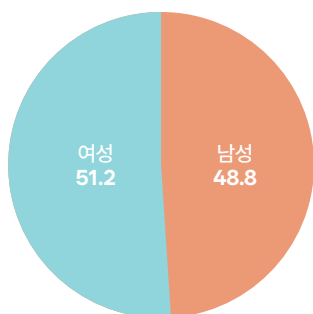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2021)

서울시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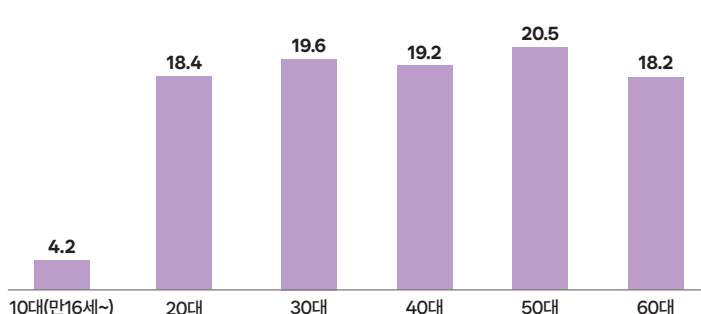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스톱킹은 '구애'의 한 형태나 '낭만적 행위'로 사소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스톱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가시화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2021.4.20.),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스톱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3.10.4.)하여 스톱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 스톱킹 피해자 윈스톱 지원센터>를 설립하고(2023.9.14.),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경찰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과 일상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관련 정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스톱킹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시 스톱킹 범죄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지원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스톱킹 피해 및 대응 경험을 살펴보고 서울시 스톱킹 피해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서울시민의 스톱킹에 대한 인식 및 피해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만16세 이상 69세 이하의 시민 2,500명
- ▶ 조사방법 및 기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 2024년 8월



성별



연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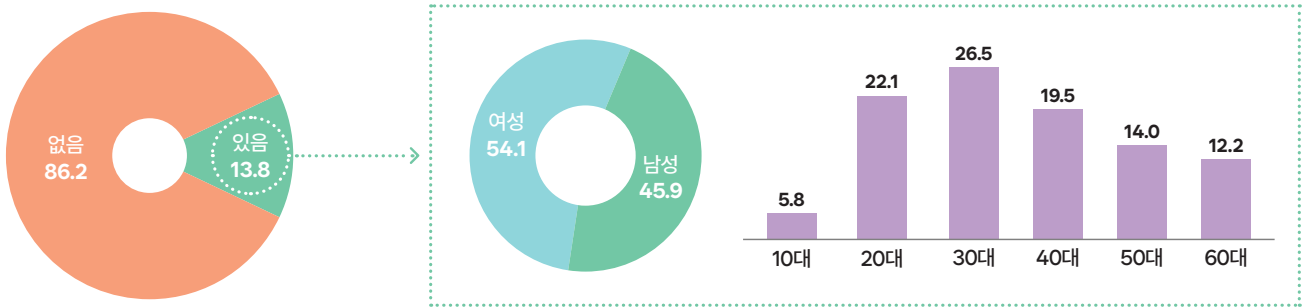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행 중인 「서울시 스톱킹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김보화·김우영, 2024)를 바탕으로 작성됨

서울시민의 스토킹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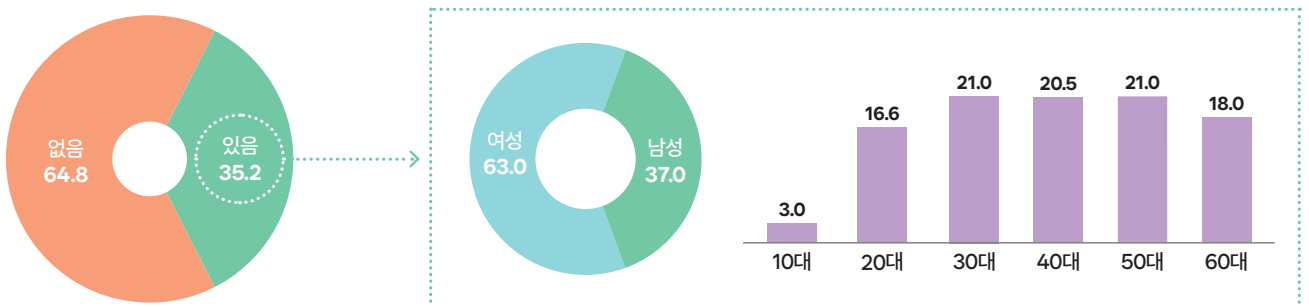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평생동안 스토킹 피해 경험

- 최근 1년간 스토킹 피해율은 13.8%(여성 14.5%, 남성 13.0%)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을 제외한 평생동안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35.2%(여성 43.3%, 남성 26.7%)로 응답됨. 최근 1년과 평생동안 생애 단 한 번이라도 스토킹을 경험한 비율은 36.8%(여성 62.0%, 남성 38.0%)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음

(단위: %, N=2,500)



[그림 1] 최근 1년간 스토킹 피해 경험 비율(성별·연령)



[그림 2] 평생동안 스토킹 피해 경험 비율(성별·연령)

○ 최근 1년간/ 평생동안 스토킹 유형별 피해 경험

- 최근 1년간 경험한 스토킹 피해 유형으로는 '우편·전화·핸드폰·온라인·SNS 등을 통해 물건이나 글·말·그림·영상 등을 받게 하거나 보게 하는 행위'가 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메일·핸드폰 및 기타 개인정보를 몰래 보는 행위'(4.8%)였음
- 평생동안 경험한 피해 유형 중에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20.8%),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20.0%) 등의 순으로 높게 드러남. 이는 과거보다 최근 정보통신망이나 온라인을 이용한 피해가 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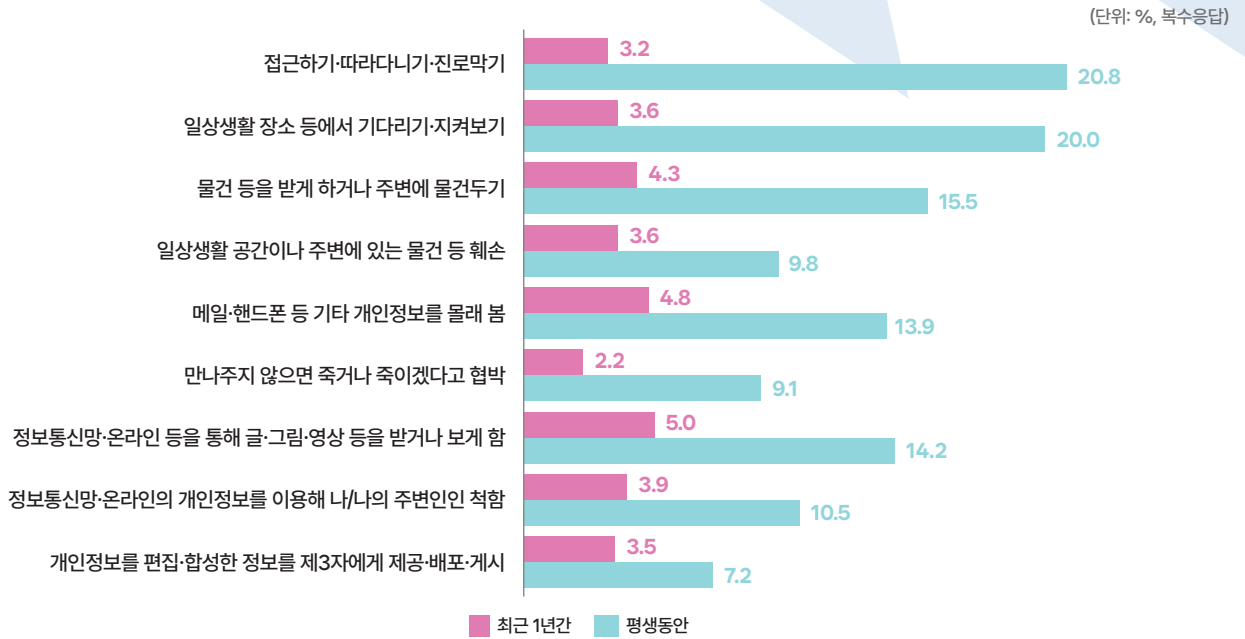


그림 3 | 최근 1년간/평생동안 스토킹 유형별 피해 경험률

○ 스토킹 가해자와의 관계와 가해자 성별

- 가장 힘들었던 스토킹 피해를 기준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질문한 결과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17.8%), '모르는 사람'(17.3%), '학교·직장 관련 구성원'(16.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음. 특히 '호감 관계', '사귀는 관계', '사귀었다 헤어진 관계',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중인 관계', '당시 배우자', '헤어진 배우자', '헤어지는 중인 배우자와 같이 (전/현)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이 48%에 달함
-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61.8%), '여성'(28.8%), '모르겠음'(9.4%) 순으로 나타남. 여성 피해자의 경우 남성 가해자가 85.3%, 여성 가해자가 7.5%였으며, 남성 피해자의 경우 여성 가해자가 63.4%, 남성 가해자가 23.4%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 피해의 경우 남성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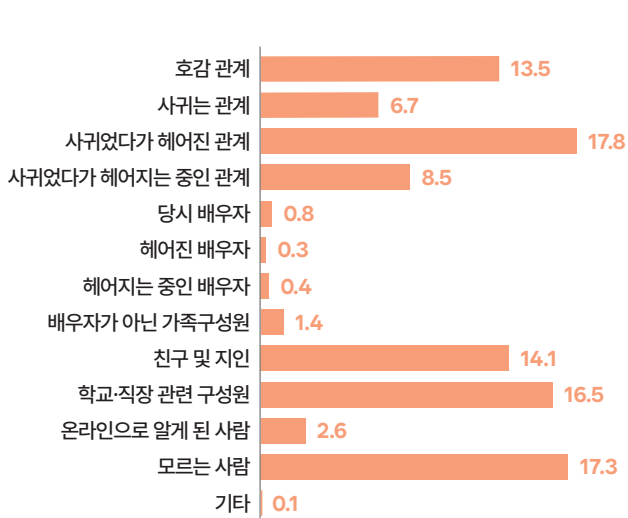


그림 4 | 스토킹 가해자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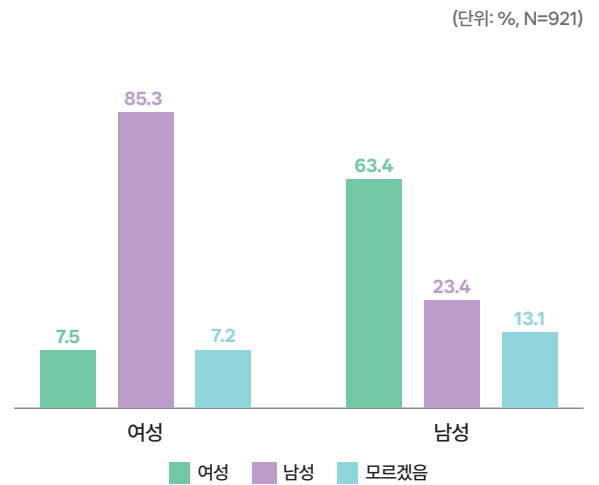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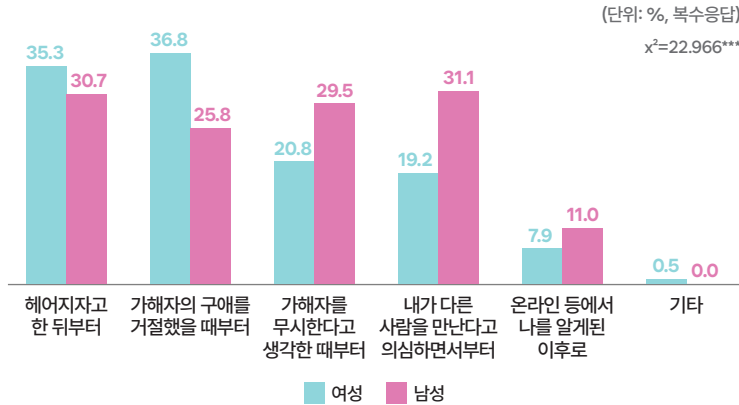


그림 5 | 스토킹 가해자 성별

주: N= 921(생애 한 번이라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 스토킹이 시작된 시기



|그림 6| 스토킹이 시작된 시기(성별)

***p<.001, 주: N=644(생애 한 번이라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스토킹 시작 시기를 모르는 응답자 제외)

- 가장 힘들었던 피해를 기준으로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 시작된 시기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드러남
- 여성은 '내가 가해자의 구애를 거절'하거나 '만나다가 헤어지자고 한 뒤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남성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부터', '만나다가 헤어지자고 한 뒤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스토킹 피해로 인한 불안 요소

- 스토킹 피해로 인한 불안 요소를 2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1순위로는 '가해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36.2%)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음
- 성별·연령별 통계적 차이가 드러났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가해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과 '나 또는 주변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에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남성은 '가해자가 내 주변인을 괴롭히는 것'과 '학교·직장 생활 등에 지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 여성보다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연령별로는 20대, 30대, 10대 순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남

|표 1| 스토킹 피해로 인한 불안 요소(1순위)(성별·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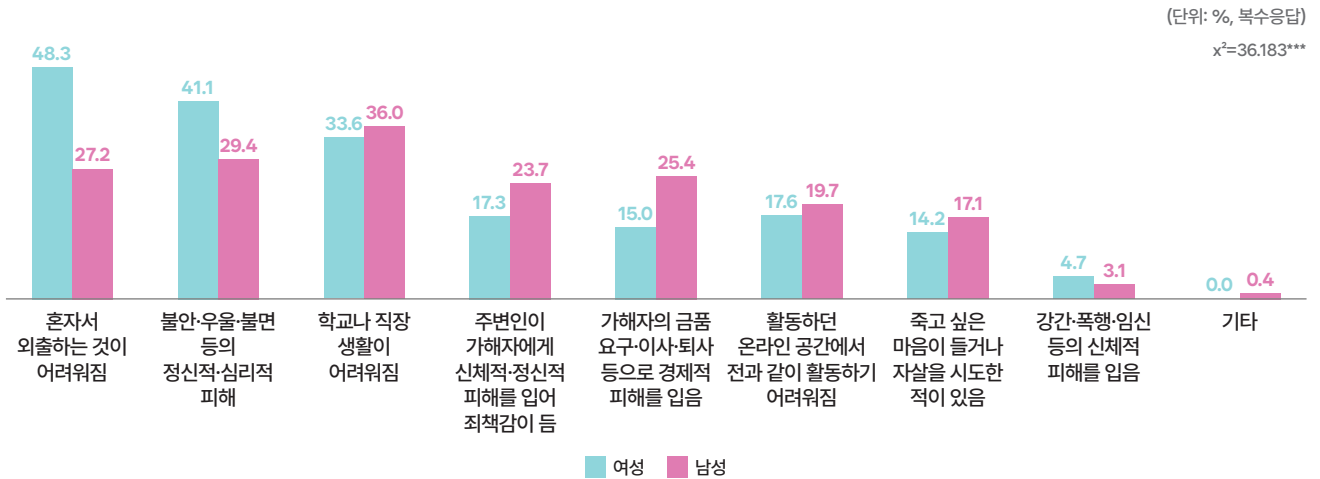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가해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	학교·직장 생활 등에 지장이 생기는 것	가해자를 몰라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	가해자가 내 주변인을 괴롭히는 것	나·주변인의 개인정보·(성적)이미지·동영상 등 유출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	나·주변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	기타		
전체	921	36.2	13.6	12.6	12.4	10.1	7.6	7.5	0.1	
성별	여성	571	42.4	12.4	12.1	9.1	9.5	6.5	8.1	0.0
	남성	350	26.0	15.4	13.4	17.7	11.1	9.4	6.6	0.3
		x ² (df)	36.202(7)***							
연령	10대	30	36.7	13.3	16.7	10.0	13.3	3.3	6.7	0.0
	20대	161	35.4	7.5	13.7	9.9	19.3	6.2	8.1	0.0
	30대	190	33.2	13.7	5.8	12.6	15.3	7.4	11.6	0.5
	40대	184	33.2	13.6	12.0	15.2	7.1	8.2	10.9	0.0
	50대	191	40.8	15.2	15.7	14.1	3.7	7.9	2.6	0.0
	60대	165	38.2	17.6	15.8	9.7	5.5	9.1	4.2	0.0
			x ² (df)	75.791(35)***						

***p<.001, N=921(생애 한 번이라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 스토킹 피해의 부정적 영향

- 스토킹 피해 경험이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혼자서 외출하는 것이 어려워짐’, ‘불안·우울·불면·분노·과음·약물남용·대인기피 등의 정신적·심리적 피해’, ‘학교나 직장 생활이 어려워짐’ 등의 순으로 응답됨
-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남성보다 ‘혼자서 외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문항에 21.1%p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호소하는 비율도 더 높았음.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남성들은 가해자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사·퇴사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여성보다 10.4%p 더 높게 나타남



[그림 7] 스토킹 피해의 부정적 영향(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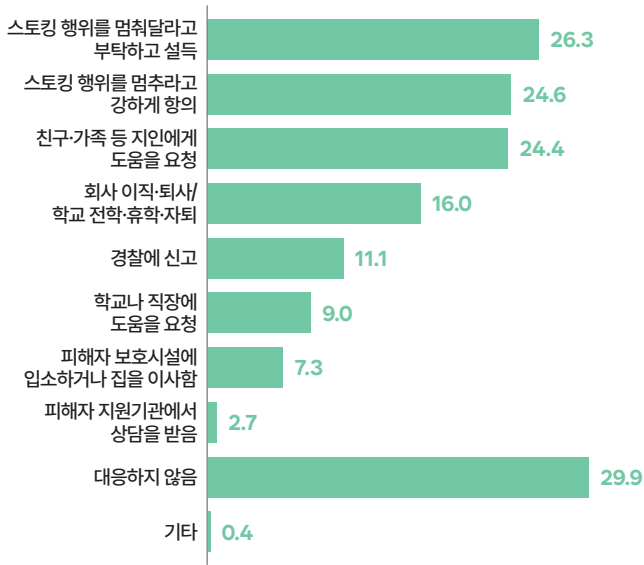
***p<.001, N=615(생애 한 번이라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응답자 제외)

서울시민의 스토킹 피해 후 대응 경험

○ 스토킹 피해 후 대응한 방법과 대응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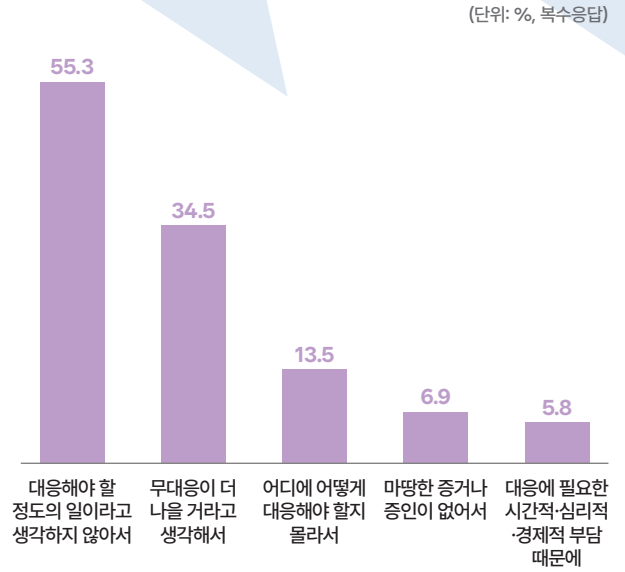
-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피해 대응방법을 물은 결과, 29.9%가 ‘대응하지 않음’에 응답함. 이는 본 조사에서 “1회” 피해 경험률이 41.5%로 높게 나온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임. 다음으로는 ‘스토킹 행위를 멈춰달라고 부탁하고 설득함’, ‘스토킹 행위를 멈추라고 강하게 항의함’, ‘친구·가족 등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함’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경험자들은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에 대응하고 있으며 신고 등의 적극적 대응은 비교적 큰 피해가 동반되었을 때 필요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중 우선 순위를 5개만 살펴보면, ‘대응해야 할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55.3%)가 가장 높게 드러남. 다음으로는 ‘무대응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마땅한 증거나 증인이 없어서’, ‘대응에 필요한 시간적·심리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음. 이는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대응해야 할 피해의 정도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무대응’을 하나의 대응 전략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줌. 더불어 시민들에게 대응방법이나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시사함

서울시민의 스토킹 피해 및 대응 경험과 정책개선 방향



|그림 8| 스토킹 피해 후 대응방법

주: N=921(생애 한 번이라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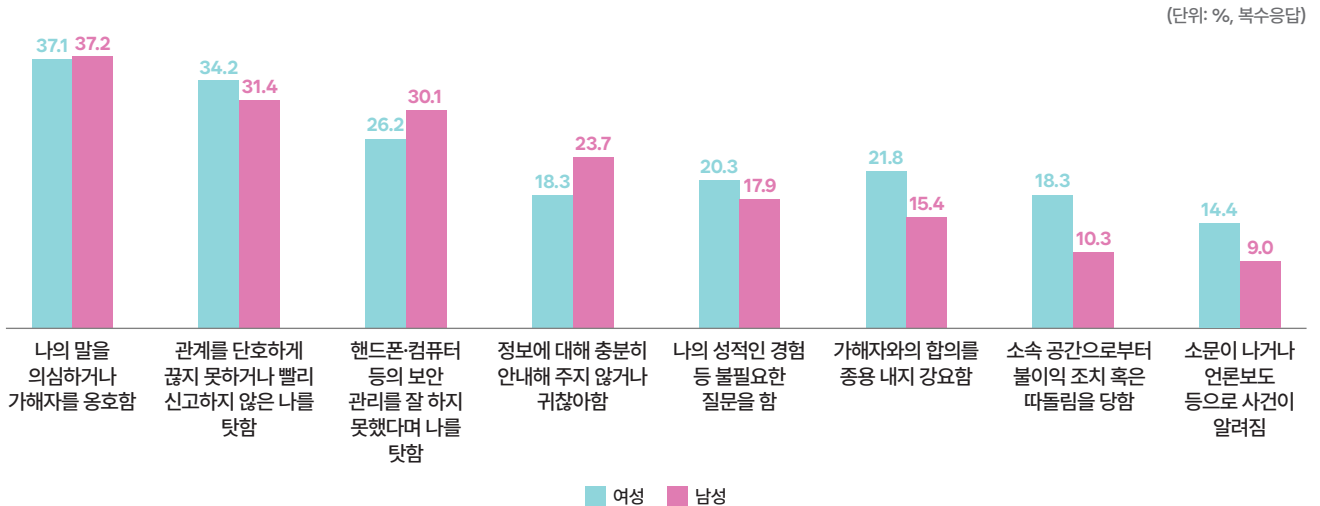


|그림 9|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주: N=275(생애 한 번이라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응답자)

○ 스토킹 2차 피해 경험

-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에게 2차 피해 경험을 질문한 결과, '나의 말을 의심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함'이 가장 높게 나타남. 2차 피해 유형을 성별로 살펴보면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성은 핸드폰·컴퓨터 등의 보안을 잘 관리하지 않았다고 나를 탓하거나 정보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 주지 않거나 귀찮아하는 경험을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보고하였음. 반면에 여성은 남성보다 소속 공간으로부터 불이익 조치 혹은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 소문이 나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건이 알려지는 경험, 가해자와의 합의를 중용 내지 강요받는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스토킹 2차 피해 경험(성별)

주: N=358(생애 한 번이라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2차 피해가 없었던 응답자 제외)

스토킹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

○ 서울시 안전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여부 및 이용 의향

- 스토킹 피해지원을 포함한 서울시 안전지원사업에 대해 이용해 봤거나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은 질문에 ‘안심택배함·안심지킴이집·안심이앱·안심귀가서비스 등의 안심 사업’(41.3%)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서울시 거주 1인가구 및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안심장비 지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서울시 안전지원 3종 사업’이 뒤를 이었음. 이에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해당 사업들을 알리기 위한 홍보가 필요함
- 집단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드러났는데 여성이고, 연령이 낮고, 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모든 사업에 대한 이용 여부·이용 의향이 높았음

[표 2]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여부·이용 의향(성별·연령·피해경험)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안전지원 3종 사업 (피해자 보호시설, 민간경호, 이주비지원)	서울시 거주 1인가구 및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안심장비 지원	안심택배함·안심지킴이집·안심이앱·안심귀가 서비스 등의 안심 사업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전체		2,500	31.2	31.2	38.4	41.3	35.2	35.4
성별	여성	1,280	35.9	35.9	44.3	47.7	40.2	39.8
	남성	1,220	26.2	26.2	32.2	34.6	30.1	30.8
	x ² (df)		27.425(1)***	27.004(1)***	38.559(1)***	43.994(1)***	27.779(1)***	21.86(1)***
연령	10대	104	32.7	31.7	44.2	46.2	39.4	41.3
	20대	459	37.0	37.5	47.1	49.9	40.7	40.7
	30대	491	36.5	35.6	42.4	45.4	39.5	40.3
	40대	480	29.4	28.5	35.8	39.2	34.2	32.7
	50대	512	27.5	28.3	34.6	36.5	31.8	32.4
	60대	454	25.3	25.8	31.1	34.6	29.1	29.5
	x ² (df)		24.941(5)***	22.746(5)***	34.162(5)***	32.595(5)***	21.211(5)**	22.924(5)***
스토킹 피해 경험	있음	921	42.2	39.3	49.3	51.6	46.4	45.7
	없음	1,579	24.8	26.4	32.0	35.3	28.8	29.4
	x ² (df)		82.747(1)***	45.1(1)***	73.164(1)***	63.752(1)***	79.048(1)***	67.795(1)***

p<.01, *p<.001

○ 스토킹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1+2+3순위)

- 스토킹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를 조사한 결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강화’, ‘경찰의 신속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수사·재판 담당자들에 의한 2차 피해 예방대책 마련’ 순으로 응답됨

서울시민의 스토킹 피해 및 대응 경험과 정책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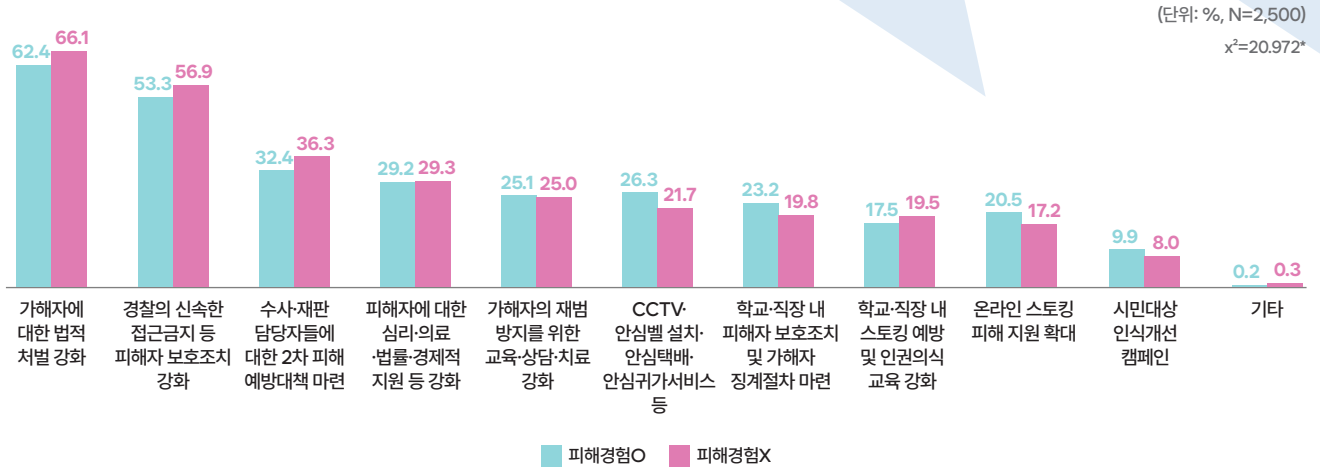


그림 11 | 스토킹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1+2+3순위)(피해경험)

* $p < .05$

-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없는 응답자들에 비해 ‘안전한 일상환경 보장(CCTV 설치·안심벨 설치·안심택배·안심귀가서비스 등)’, ‘학교·직장 내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절차 마련’, ‘온라인 스토킹 피해 콘텐츠 및 내용 삭제 등 지원 확대’에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함. 이는 피해경험자들은 안전한 일상 확보 및 조직 내 처리 등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줌

서울시 스토킹 피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

○ 서울시 스토킹 피해 지원기관 지원 범위 확대 및 질적 제고

-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서울 경찰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의료·법률·심리상담·민간경호서비스·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의 사각지대를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범위, 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자들의 감수성과 안전조치 강화, 기관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국적, 장애(정신건강 포함), 경제활동 여부, 위험 정도, 자녀 및 반려동물 동반 여부 등에 따라 피해자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는 다양화가 요구됨

○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 서울시는 1인가구 및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안심장비 지원사업(스마트초인종·가정용 CCTV·현관문잠금장치·음성인식 비상벨·디지털도어록 설치·지원) 및 안심물품 지원사업(안심경광등·휴대용 비상벨)을 진행하고 있음. 스토킹은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인만큼 관련 사업들에 스토킹 피해자 우선 지원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스토킹 피해자들은 회사를 옮기거나 이사 등을 하면서 의식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취업 지원·직업 훈련·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과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어야 함

○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

- 현재 스토킹에 대한 지원정책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숨기고,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조심하고 예방해야 되는 방식으로 개인화될 여지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책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기를 제안함
- 스토킹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일부로서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 폭력예방교육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스토킹을 사소화·미화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이 요구됨